

미국 '98 돈육수출 전년비 25% 증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은 지난 97년 같은기간 대비 25%가 증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NPPC(미국돈육생산자협회)에 따르면 지육기준 지난 97년 같은기간 대비 ▲중국 123% ▲콜롬비아 1,176% ▲에스토니아 310% ▲멕시코 74% ▲타이완 377% ▲영국 142% 등의 수출확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미국 가축용 항생제 사용 제한 추진

미국 정부는 사람이 항생제를 투여받은 가축의 고기를 먹을 경우 몸안에 약물내성의 세균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가축용 항생제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FDA가 검토중인 규제안에 따르면 ▲새로운 가축 항생제를 판매하려는 업체의 경우 약물내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토록 하고 ▲정부는 식품을 매개로 한 약물 내성의 허용치를 제시토록 하고 있다. 규제안은 또 FDA가 인간에게 미치는 항생제 영향 등을 기준으로 가축용 약품에 등급을 매기고, 필요한 경우 항생제 생산업체에 대해 농장 현지에서 가축 실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FDA는 오는 4월 공청회를 거친 후 규제안 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가축용 항생제 생산업체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에서는 이미 가축의 성장 촉진제

로 사용되는 항생물질 6가지의 사용을 금지시킨바 있다.

자연산 육류 「Certified Organic」 표기 허가

미 농무성(USDA)은 호르몬이나 항생물질을 투여하지 않고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생산한 고기에 "Certified Organic"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고 지난 1월 밝혔다. 이 육류들은 연방정부로부터 검증된 검사절차를 통과한 Organic식품이다. 자연산 육류를 불리기도 하는 이 Organic육류는 다른 식품에는 많이 허가되었으나 육류에 허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내에서도 이러한 Organic육류의 표시가 여러 업체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이들은 "Certified Organic"으로 표시된 육류가 일반적인 상태의 육류보다 보통 10~50%까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미 농무성의 덴 글릭먼 장관은 이러한 제도가 축산산업에 활기를 불어 일으킬 것이라고 밝히며 특히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돈육시장에서 Organic돈육은 높은 가격이 보장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rganic돈육은 현재 100파운드에 60~70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생돈 가격이 100파운드 당 28달러 대를 유지하는 것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Certified Organic" 표기가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일본 식육중의 항생물질등 4개품목에 잔류기준치 추가 설정

일본 후생성의 식품위생조사회는 축·수산 식품중 동물의약품 잔류기준치 설정을 위한 회의에서 작년 10월에 검토·의뢰한 4개품목에 대해 기준치를 설정하였다. 이로 인해 1995년부터 순차적으로 안전성 평가가 과학적으로 정비되고 있는 항생물질 11개 품목에 추가하여 도합 15개 품목의 잔류기준치가 설정되었다.

이번에 기준치가 설정된 것은 항생물질인 스피라마이신, 벨질페니실린과 내기생충용제 도리쿠라벤다솔과 모기시데구징의 4개 물질이다.

EU '98 농업소득 3.9% 감소할 듯

- 돈육 등 축산물 산출액 감소가 주요인

지난해 EU의 농업소득이 전년대비 3.9% 감소,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소득감소는 돼지고기를 비롯, 축산물 산출액 감소가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축산물에 대한 품목별 산출액에서 보면 돼지고기의 경우 20.8%로 전년대비 대폭 감소했다.

이는 지난 96년 발생한 BSE(일명 광우병) 및 97년 네덜란드의 돈볼레라 대량발생 등으로 인해 EU 가맹국의 돼지증산이 급속도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돼지고기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 및 아시아국가의 경제위기 발생에 따라 돼지고기 수급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돼지고기 민간 재고 보조금제도 실시

EU 돼지고기 관리위원회는 돼지고기의 민간 재고 보조제도(PSA: Private Storage Aid)를 지난해 말부터 실시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이는 돼지고기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재고보조를 실

시함으로써 돼지고기의 민간재고 보관을 촉진하고 시장유통량을 억제해서 EU역내 돼지고기 수급의 안정을 위한 조치이다.

동위원회는 이번 대상이 되는 재고수량을 7만톤 이내로 하고 있다. 보조금을 대상으로 계약하는 돼지고기의 재고기간은 4개월, 5개월, 6개월이다. 단 EU역의 수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당해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고기를 출고할 수가 있으나 재고일수(월수)의 변경에 따라 보조금액은 삭감된다. 그리고 보조금의 교부조건으로 계약기간 만료후 전량이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수출되지 않으면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1회 계약할 때 최저수량 단위는 뼈제거돈육 10톤, 지육으로 15톤이다.

대만 구제역 재발생 "비상" 단

대만에서 돼지 구제역이 재발생, 비상이 걸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만 정부가 일본 농수성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일 대만 장화현의 1개 농장에서 돼지 53두가 구제역이 발생, 42두를 살처분 하는 등 7개현, 2개시에서 9백96두가 살처분 됐다.

대만은 지난 97년 3월 구제역 발생으로 그해 7월 15일까지 4백3만두에 달하는 돼지를 살처분후 구제역 백신 등을 통해 발생이 진정됐으나 지난해 12월 재발생 했다. 이에 따라 대만산 돼지고기의 일본으로의 생육수출 재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본 역시 대만산 우제류 동물과 축산물 수입에 대한 금지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구제역 이후 양돈농가 호수 계속 감소

-중간계층의 감소 두드러져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와 대만정부 농림청이 발표한 98년 5월말 현재의 양돈농가 호수는

전회조사시(97년 11월말)보다 8.4%감소한 18,739호이다. 이것은 구제역 발생직전의 96년 11월말과 비교하면 26.1%나 크게 감소하였다.

전회(97년 11월말)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계층에서도 농가호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사양두수가 100~999두 및 1,000~4,999두의 계층에서의 감소폭이 10%이상으로 타계층보다 높았다. 이 두 계층은 96년 11월말 구제역 이전과 비교해도 감소폭이 각각 30.6%, 36.0%로 20%전후의 타계층을 상회하고 있어 구제역 발생후의 육돈의 감소와 환경대책강화 등의 어려운 상황하에서 그 중 중견계층의 규모축소 또는 이농이 보다 큰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1호당 평균 사양두수도 전회 조사시보다 9두 감소한 380두이다.

호주 양돈 포기농가에 직접지원 검토

양돈업계의 불황을 맞고 있는 호주정부는 양돈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이농 양돈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수입관세와 수입 쿼터는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호주 양돈협회도 종전의 긴급관세, 수입쿼터 요구 입장을 철회하고 양돈업 포기농가에 대한 보조, 구조조정 등 생산성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호주는 97년 한 해동안 1만1천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하였으며, 그중 약 80%가 캐나다산 돼지고기였다.

호주 양돈농가들은 생산비 이하의 가격하락이 과도한 수입 때문이라며 긴급관세, 수입쿼터, 정부지원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지난 10월 총선시 정치 쟁점화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마크벨리 농무장관은 생산성 위원회의 긴급관세조치 검토 보고서를 신중히 검토,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10%의 관세부과는 별의미가 없

고 과도한 관세부과는 캐나다와 또 다른 보복성 무역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캐나다 미국산 육돈 수입규제 완화

캐나다 정부는 최근 오제스키 및 부루셀라 청정지역인 미국 각 주로부터 비육돈 수입에 대해 30일간의 검역 즉시중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검역규칙을 개정했다.

이는 미국 사우스 타코다 주에 캐나다산 생체돈, 생체우 및 곡물 수입규제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정부간에 체결된 농축산물 시장개방대책 합의내용 중 하나다. 특히 이번 조치로 캐나다 팩커가 미국산 비육돈을 수입하는 것을 의미, 처음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미국 양돈농가 일부에서는 캐나다로부터 생체돈 수입도 증가하고 있어 비육돈 출하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 '98년 10월 2개 지방에서 돈콜레라 일 재발생, 3천두 이상 도태

독일에서 지난 10월에 돈콜레라가 재발생, 3천두 이상이 토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생한 곳은 서부의 노루도라인·베스트화렌주의 와벨돌후와 니다사구센주의 배구다 양지구이다. 인근 지구가 규제지구로 지정되어 동지역 내의 55농장에서 생돈도축·생돈매매가 '98년 11월 3일까지 금지되었다. 그리고 동지역 내의 소, 양, 말, 가금류를 농장으로부터 이동할 때에는 수의사의 허가가 필요하도록 되었다.

또한 규제지역에서 반경 10kg이내의 사육농장 약 300개소가 감시하에 놓이게 되었다. 독일 식료, 농업성에서는 금후에도 5~6천두의 돼지 도태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분명히 하였다. **양돈**